

전남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온힘

여수시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3년간 27억원 투입 시범사업 22개 시·군 참여 사업설명회...추진 방향·우수 사례 현안 공유

여수시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까지 3년간 총 27억원을 투입해 13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범사업 종료 후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군 간담회 정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돌봄사업 발굴, 노인 맞춤형 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22개 시·군과 함께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노인학대 문제 등 다양한 노인돌봄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23년 노인 의료·통합지원사업 안내 ▲2023년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노인학대 사례 및 법적절차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다. 돌봄 필요 노인보호 조치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로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돌봄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가 서비스의 불충분한 제공으로 돌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 노인이 살

던 곳에서 의료·돌봄·요양·거주·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자체는 전남도를 비롯해 광주·대전·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전국 9개 시·도 12개 시군구다.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제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김평권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사업이 조기에 안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8000명(2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오는 2030년 10명 중 3명 이상, 2050년 2명 중 1명이 고령인구에 해당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도민 생활 불편 해소 기여

올 859건 정책 제안 43건 채택

전남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올 한해 859건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해 이 가운데 43건이 채택되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도민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목포 폰타나비치 관광호텔에서 '2023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성과공유회'를 열어 전일 인센티브 신청 간소화 등 우수 정책 제안을 시상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선 참여단 60여명과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 최성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단이 정책제안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요 우수사례는 실제 각 지자체에서 채택된 시책들로 ▲전일 인센티브 신청 간소화 ▲여수 국동항 마스크트 개발 ▲순천 선암사 주차장 영수증에 환불 안내문 표기 ▲이동식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이다.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활동하는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했다. 전남에선 101명이 활동 중이다. 이



들은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할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올해는 859건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 이 중 43건이 채택됐다. 또 시군별 정책설명회, 정부혁신 국민평가단, 국민 규제토크 등 각종 정책현장 등에도 참여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소통도정이 되도록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참여단이 역할을 잘 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대상자 750명 모집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전남도가 미래 전남농업을 이끌 2024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750여명을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됐다. 2023년 현재 전남에선 총 1980명의 청년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발돼 1905명(96%)이 지역에 정착하는 등 농촌 활력 증진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8~40세(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여야 한다. 또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자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교육 등과 연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전남지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했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4년부터는 임산·출산 농업인 우대, 교육 이수시간 완화 등 선발 기준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됐다"며 "많은 청년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우럭조개 종자생산' 전국 연구·기술보급사업 발표회 최우수상

최근 8년간 최우수상 7회 수상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3년 전국 연구·기술보급사업 발표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우수 연구기관임을 입증했다.

<사진> 발표회는 국립수산물연구원 주최로 해양수산부, 전국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 올해 종료되는 연구·교습어장 과제 6편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발표와 질의응답, 전문심사위원회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우럭조개류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가 최우수상을, 부산시수산자원연구소가 '기장해역 큰열매모자반 양식기술 개발 및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우럭조개 종자생산 기술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이를 통한 어미 성숙 유도와 조기 종자 생산 기술개발, 수하식 양식모델 개발 등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우수 성과



인 우럭조개 종자 생산, 양성기술을 2024년부터 어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전략품종 개발과 어업현장 맞춤형 연구,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최우수상 7회, 우수상 4회를 수상해 전국 지자체 해양수산 연구기관 중 가장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자립준비청년 출발드림 워크숍 개최

사회 정착 돕는 경제 교육·상담

전남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15일까지 이틀간 출발드림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홀로 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을 앞둔 보호연장아동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세사기, 명의도용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금융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목적에 맞는 자립정착금 사용, 예·적금 설정 등 경제교육을 진행했다.

또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참여하

도록 대인관계형성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도 가졌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자란 뒤 보호가 종료돼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200여 명에 이른다"며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전남 행복 시대 주인공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발드림 워크숍은 지난 3월 수립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7-8일 여수예술랜드에서 순천·여수 등 동부지역 자립준비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출발드림 워크숍을 추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3000명 추첨 경품 증정도

전남도가 20일까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가자 3000명을 추첨해 치킨, 생활용품, 음료·간식 쿠폰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설문조사 이벤트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가 1년 만에 43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자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문자 및 서포터즈 누리집(https://namdo2.jeonnam.go.kr),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2일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고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서포터즈 가입 경로, 전남도 방문 경험 및 할인가맹점 이용, 정보 이용 등 만족도, 서비스 개선 의견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는 수요에 부합하는 알찬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받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